

광주는 롯데왕국

지역기여도 낙제점

한 해 매출 1조원, 사회공헌은 고작 1억원

<0.01%>

지역제품 구매 비율도 1% 안돼 고용도 대부분 비정규·파견직원

지난해 롯데는 광주에서 광주시 1년 예산(3조5000억원)의 30%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이 돈은 모두 본사로 올라가 지역 내 소비 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는 지극히 낮다. 지역사회 환원에도 인색해 '폐기지만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 지역에서 한 해 1조원 벌어=지역 유통업계는 지난해 롯데가 광주 지역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주장했다.

백화점 약 3500억원, 마트(4곳) 약

3200억원, 아울렛(2곳) 약 2500억원에 기업형슈퍼마켓(SSM) 12곳의 매출을 합하면 약 9000억~1조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는 계산이다.

이는 지역 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한 해 동안 올린 매출액 1조9700억원(통계청, 2011년 기준)의 절반에 육박하는 액수다. 하지만 롯데가 광주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고작 연 평균 31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 지역 기여 실적 저조=1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가 지역사회에 환원한 실적은 1억여원에 불과하다.

이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실적이다. 마트와 슈퍼는 전무하고 아울렛은 봄 사활동을 벌이는 정도다.

현지법인인 (주)광주신세계가 백화점과 이마트 광주점 2곳을 운영하며 기부금으로만 2010년 17억6800만원, 2011년 7억5000만원 등 매년 평균 35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광주신세계는 또 누적순이익금(현금보유금액) 1800억원의 60%를 주거래 은행인 광주은행에, 40%는 광주에 있는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있다. 이 돈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대출금으로 쓰이는 등 지역 경제에 선순환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사회와 상생 필요=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정신차려 롯데! 부산

제외하고 금융거래는 서울 본사를 통해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역 제품 매입도 대부분 식품에 그칠 뿐더러 매입액은 총 매출액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고용창출 역시 채용인원의 90% 이상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으로, 대부분은 임대매장이나 납품업체에서 파견한 직원이다. 정규직은 백화점이 100명 정도,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 점포별로 평균 50여명에 불과하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역 제품 매입이나 사회공헌활동 등을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점포가 나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와 상생 필요=지난해 부산지역에서 '정신차려 롯데! 부산

시민운동본부'가 발족하는 등 '안티롯데' 운동이 일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부산에서 막대한 이익을 쟁기면서 지역을 위한 투자나 기부에는 인색하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에서도 롯데의 시장 점유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롯데가 북구 운암동에 마트 신축을 계획하고 창고형 할인점까지 열려고 하자 지역 중소상인들 사이에서 불매 운동 등 강력한 단체 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롯데도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박지원 불출석…檢, 재소환 통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윤식 부장 검사)은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 대표가 19일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조만간 다시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추가 출석 요구에도 박 원내 대표가 불응하면 곧바로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대검 조사실로 나오라고 통보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두하지 않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

광신대학교 신입생모집
2013학년도 학부 수시 1차
■원서접수 : 8월 20일~ 9월 11일
2012학년도 후기 대학원
■원서접수 : 8월 6일~ 8월 20일
입학 학부 062)605-1114
문의 대학원 062)605-1115
광신 대학교

www.hpdynastycc.co.kr

정부, 영유아 무상보육 2800억 지원

당정정 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전액 요구 반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8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주시·전남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는 여전히 전액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

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여당 고위당직자들은

부족한 을해 만~2세 무상보육 지원

액수를 미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의 지원없는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반발, 추경예산에 지방비를 포함하지 않고 전액 국비 지

원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시·도지사 협의회의 반발은 여전하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0~2세 영유아 무상보육비 82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부답분(60%)인 국비 176억원은 책정됐을 때도 시비(28%)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광주 5개 자치구도 관련 예산 37억 여원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 전남도 역시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비 77억원과 일선 시·군 144억원 등 221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런던올림픽 D-7 ▶ 14·15면

양학선·기보배 런던입성

나로호 3차 발사 10월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제5차 국가 우주위원회를 열고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의 나로호 3차 발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항우연은 10월 발사를 목표로 나로호의 발사 준비와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항우연은 그동안 지난 1, 2차 발사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홀인원 대박을!!



로또 누적방식 홀인원 상금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1.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최초 시드머니 100만원을 2개의 Par3홀에 겁니다.
2. 도전을 희망하시는 팀은 Tee off 전에 1만원을 배팅합니다.
3. 홀인원에 성공하시면 그때까지 누적된 상금의 90%를 수상하게 됩니다.
→ 10%는 차기 홀인원 시드머니로 적립됩니다.
4. 누적된 상금은 매일 실시간으로 프론트에 게시됩니다.
5. 이벤트 홀은 임페리얼코스 7번, 펠리스코스 20번홀입니다.

진초록 양잔디 카펫을 밟으며 평생 잊지 못할 짜릿한 추억을!!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전남 함평군 학교면 국창리 1-6 예약전화: 061-7700-7777